



김남규 전주시 의장, 한복산업 지역 연계 논의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장이 한국한복진흥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을 방문해 한복 및 전통문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남규 의장과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들은 26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한국한복진흥원과 안동시 소재 한국국학진흥원을 연달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주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와 전통문화 관련 논의 및 계획 수립을 위해 이루어졌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경상북도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대상지'로 선정돼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266평의 공간을 창작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남규 의장은 "전통문화와 한복문화산업 발전에 뜻깊은 만남이었다"며 "이번 논의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교류와 연계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순창성가정식품 식품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쾌거

순창성가정식품(대표 김종덕)이 제2회 식품안전의 날 식품안전관리 유공자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6일 밝혔다. 순창성가정식품은 인제농공단지에 위치한 장류 및 절임식품 생산업체로서, 4대째 이어져오는 순창의 전통 제조방법으로 국내 최초 장류 및 절임식품의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됐다. 우수하고 위생적인 HACCP 인증 시설을 바탕으로 전통식품의 우수함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순창 대표 업체임을 인정받아 식품안전관리 유공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순창성가정식품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도 받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성가정식품 김종덕 대표는 "앞으로도 정성이 담긴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마을 이야기 담은 성과물 전시회 열려

임실군이 지난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 동안 임실문화원에서 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및 사진(그림) 등 사업 성과물을 공유하고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과소화·고령화되어가는 농촌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잊혀져간 역사를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책을 제작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고유의 자원 및 자산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관람은 지양하고 전시 기간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회 작품으로는 작년 시군역량강화 '우리마을 담다' 사업으로 총 5개 마을(삼계 법촌마을, 삼계 뇌천마을, 덕지 구담마을, 덕지 가곡마을, 지사 안하마을)의 이야기책을 비롯하여 드론을 이용한 각각의 마을 전경 및 상징적 사진 촬영물 이를 활용한 그림 등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군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군은 사라져갈 위기에 놓인 과소화 마을을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한편, 마을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끊임없이 발굴해 농촌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기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나눔명문기업 가입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영환)는 26일 대한민국의 나눔문화를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객 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고 전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로부터 나눔명문기업 현판을 전달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하는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누적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에 나눔명문기업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한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전라북도에서는 9번째 나눔명문기업으로 1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김영환 한전 전북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예산이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대표 공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빛내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대표 공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빛내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생명 전북총국, 육묘장 일손돕기 구슬땀

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26일 김제시 백구면 소재 육묘장을 찾아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육묘 치상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협생명 전북총국,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태관), 농협시료 전북지사(지사장 정준), 백구농협(조합장 이영철) 등 범농협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숙 총국장은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협과 농민이 함께하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일손돕기에 나섰다”면서 “매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농협 차원에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동충동, 경로당 운영재개 현장 방문

남원시 동충동동장 김은영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운영을 전면 재개한 경로당 7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는 때 이른 무더위로 심신이 지쳐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경로당 방역현황과 노후화된 시설을 점검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낮에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고 적당한 휴식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당부했으며, 어르신들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는 등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진구 세무과 신문섭 주무관,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신문섭 주무관이 지난 25일 개최된 '2022년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번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신문섭 주무관은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신 주무관은 지방세기본법 개선분야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방안'을 주제로 지방세 환급금 제3차 양도를 통한 지방세·국세 체납세금의 조세회피 업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령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신 주무관은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거주자들의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타지 방지차관제 및 국세 체납액의 충당방안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원호 덕진구 세무과장은 “평소 세정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투철한 신문섭 주무관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지방세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원호 덕진구 세무과장은 “평소 세정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투철한 신문섭 주무관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지방세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석대 정문웅·양순희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우석대학교 정문웅(호텔외식조리학과)·양순희(뮤지컬학과) 교수가 제4회 스승의 날을 맞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천현 총장은 26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이상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문웅·양순희 교수는 30년 이상 대학에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은 물론 고등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1991년 부임 이후 식품과학대학장을 역임한 정문웅 교수는 식품화학 및 식품분석 분야에서 30여 년간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108편의 국내외 논문과 11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연구 결과는 4500여 편이 인용됐다. 또 예술교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양순희 교수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공연예술가와 안무가 등을 배출하며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청호무용단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며 문화 소외지역 순회공연과 장애인을 위한 공연 등을 기획·연출함으로써 문화예술향후를 위한 확대에 기여했다. 남천현 총장은 “교육과 연구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정문웅·양순희 교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위한 공연 등을 기획·연출함으로써 문화예술향후를 위한 확대에 기여했다. 남천현 총장은 “교육과 연구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정문웅·양순희 교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한우지방공사 '한우개량명인' 현판 수여

국내 최고 한우의 자리를 가리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한우개량명인' 현판을 수여 받았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농가의 위상 강화와 참여 농가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한우개량명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대통령상의 명예 및 희소성을 고려해 대회 규정 개정 전 수상 농가에 대해서도 '한우개량명인' 지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간담회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도급사업 관련 적격 수급업체 평가, 계약 관련 업무흐름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운영, 각종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실공단, '재능기부'로 주차선 도색 봉사

전주시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지난 25일 주차운영부 직원들이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30편의 주차선을 무료로 도색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색봉사는 공단이 시설 투자에 역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인력과 전문 장비를 활용한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주차장 주차선 도색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봉사 활동은 단순한 기부활동을 넘어 부서 특성과 내부인력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2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3명에게 즉결심판 청구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처벌 감경, 원천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